

사랑해야 사랑이다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의 관점에서

201421522 노은유

1. 들어가며 - 사랑에 대한 착각
2. 어긋난 사랑
 - 가. 까밀라를 시험한 안셀모
 - 나. 아벨을 죽인 가인
3.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 가. 현대인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
 - 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4. 마치며 - 진정한 사랑

1. 들어가며 - 사랑에 대한 착각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혹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 혹은 대상을 ‘사랑한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원한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정의한 사랑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권력을 가지려 하거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꾼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이러한 태도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사랑받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랑의 형태는 병의 일종으로, 이는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린 자식은 예외 없이 사랑받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 채 단순히 기쁘게 반응한다.¹⁾ 이러한 유형은 흔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유년기에 드러나는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사랑받기 위해 대상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나를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대상에 - 어머니가 다른 형제를 더 보살핀다고 느낄 때 그 박탈감으로 다른 형제를 괴롭히는 경우와 유사하게 - 질투심과 분노를 드러낸다. 이러한 사랑의 방식을 돈키호테의 안셀모와 창세기의 가인을

1)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61쪽.

예시로 들어 사랑의 유형과 대상이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인간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받는 데 더 집중해왔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받으려는 태도가 사랑하는 것을 점령하고 말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왜 더욱 우리는 사랑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2. 어긋난 사랑

가. 까밀라를 시험한 안셀모

안셀모는 까밀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해 줄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여 자부심을 느낄 목적으로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인 로따리오에게 까밀라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안셀모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시험하려 했다는 점에서 안셀모를 어머니상에 집착하는 어린이처럼 사랑받기 원하는 남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자는 올바른 여성 -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여성 - 을 만나는 데에서 안정감, 심지어는 의기양양함을 느낀다.²⁾

안셀모에게 그러한 부탁을 받은 친구 로따리오는 안셀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안셀모는 끝까지 밀어붙이며 반강제적으로 로따리오를 이용한다. 여기서 안셀모의 사랑이 갖는 특수성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받는 데 집중하는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이기심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주는 데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받는 데서만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는데 안셀모가 이기적인 사랑을 했음은 안셀모의 행동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안셀모는 그가 등장하는 돈키호테 33~35장을 통틀어 자신이 까밀라를 진정 옳은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죽기 직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돌이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제시했듯이 오직 안셀모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오직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이용했다. 또한 안셀모에게 까밀라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인물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오직 유용성을 기준으로 선택된 인물이다.³⁾ 까밀라는 결국 로따리오를 사랑하게 되는데 안셀모의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두 사람이 불륜을 일으킨 원인 역시 안셀모가 까밀라를 사랑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셀모는 죽기 직전에서야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는 결국 까밀라와 로따리오가 불륜을 일으킨 것은 자신이 미성숙한 사랑으로 까밀라를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임을 인정한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편 안셀모의 늦은 깨달음으로 그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맺게 됨에서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나. 아벨을 죽인 가인

안셀모에게서 사랑받으려는 인물의 이기심을 봤다면 가인을 통해서도 사랑받기를 원했던 인물이 사랑받지 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벨

2) 위의 책, 129쪽.

3) 위의 책, 85쪽.

에게 분노감을 느끼고 아벨을 죽인다.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가인 역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받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랑받으려는 태도는 곧 사랑이다. 결국 가인은 자신이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순수한 사랑으로 착각하여 자신이 순수하게 사랑하였음에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긴 것이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가인은 실망, 분노감에 휩싸였고 아벨을 죽이고 만다. 에리히 프롬은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어긋난 사랑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 기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매우 실망하고 몹시 불평한다고 말한다.⁴⁾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는 것이다.

3.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가. 현대인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지금까지 사랑받으려는 태도는 이기적이며 그런 태도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를 안셀모와 가인의 예를 들어 분석하였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인간이 사랑받으려는 태도가 사랑의 유형을 막론하고, 그리고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태초로부터 돈키호테의 중세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즉 사랑받으려는 태도는 인류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태도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더 심화된다. 『사랑의 기술』은 자본주의로 인해 현대인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문제적으로 인식하며 그 이유를 분석한다.

우선 자본주의 구조는 현대인을 사랑받는 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자본주의 시장구조 하에서 자본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와 거래를 추구하며,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 즉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법칙은 사랑의 방식에 그대로 적용되어 현대인들이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더 많이 사랑받으며 더 높은 가치로 거래되기 위한 목적으로 갖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에 맞춰 일정한 양만큼의 사랑을 받은 후에야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 즉 사랑을 거래행위로 보고 더 유리한 거래를 얻어내겠다는 심리가 현대인의 사랑을 퇴색시킨 것이다.⁵⁾

그리고 역설적으로 인간은 현대 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더 윤택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자신을 가난하게 한다는 생각 내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행위라는 착각을 한다. 가령 내가 100만원의 사랑을 준 상대가 80의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이 20만원의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옳지 못한 사랑이라고 생

4) 위의 책, 130쪽.

5) 위의 책, 15쪽.

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현대인은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 에리히 프롬은 이 책의 말미에 이 책을 저술한 의도가 현대인에게 기본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런 사랑의 방식이 나타나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고자 함에 있다고 서술한다.⁶⁾ 우리는 받는 데에 집착증이 걸려버린 현대 사회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책의 진정한 주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나.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잠시 안셀모와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안셀모와 가인은 제멋대로 행동한 듯 보이지만 도리어 자신이 사랑받느냐 사랑받지 못하느냐에 문제에 휘둘리는 행동을 한다. 이는 현대에까지 이어져 에리히 프롬은 받기 위한 사랑은 오히려 자신을 거래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현대인을 상품화하고 소외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에서 현대인은 먼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⁷⁾ 즉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할 때야말로 성립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로서만 자아를 인식할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아도취감과 그로 인해 초래된 소외와 고립을 주는 사랑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사랑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도리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태도는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마음가짐일 뿐이다.⁸⁾ 물론 『사랑의 기술』에서 제시하는 사랑을 하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오면 진정한 사랑은 내가 100을 주면 80을 주는 상대방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음으로써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명력을 느끼며 나에게 결여된 20을 나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분리 경험을 통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분리 상태를 안셀모와 가인이 착각했듯이 사랑받는 순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과 사랑받는 존재 모두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줌으로써 서로에게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는 생동감에서 오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상호간의 정서적 합일이 바로 사랑이며 바로 이런 합일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분리된 상태로부터 느끼는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 마치며- 진정한 사랑

앞서 제시한 많은 문장들을 정리하면 진정한 사랑은 성숙함을 기반으로 사랑받는 데 집착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상대방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결단력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안셀모와 가인에게서 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원칙을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는 원칙을 따른다.⁹⁾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

6) 위의 책, 177쪽.

7) 위의 책, 120쪽.

8) 위의 책, 42쪽.

9) 위의 책, 62쪽.

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할 것이다.’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따르며 이런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까지 이른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이 태도는 그 사람을 사랑받는 존재로 이끈다. 즉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는 데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그리고 내가 무조건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적 태도를 기초로 하는 어린아이같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술』은 제목에 걸맞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키워야 할 기술적 측면을 제시한다. 사랑을 기술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훈련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숙달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그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¹⁰⁾ 이 책의 시선에서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진정 사랑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10) 위의 책, 148~150쪽.